

내 마음엔

관 물 이 날 여

폴·베르레느 原作  
趙 靈 出 譯

거리에 비오듯이  
내 마음엔 눈물이 난인다  
숨을은 무슨가닭에  
내 마음을 파고드나

당외두 짐승에두  
간헐은 비스초리  
피곤한 마음을 위해  
오오 읊조리는 비스발이여

답답한 마음속엔  
력없이 눈물이 날인다  
뭐나 무슨 모함이나  
이喪禮는 까닭이 없고나

가닭을 모르니  
좌없이 퍼로워  
사랑도없고 원망도 없이  
내 마음은 이다지도 압축다。

影 子

大 應

사랑이 그리워 님이 그리워  
깊을밤 좁은길을 더듬었드니  
고요한 빈방에 燭불만 煌輝롭다。

님이시여!  
키—돈밀 하히안花瓶에  
한폭의水仙花 그윽한香氣는  
님의 無限愛의 象徴이오니가?

파리한손으로 여윈불을 피이고 눈은감다。  
臙朦하게 煙氣같이 피여울은는意識  
오——그애의 그香氣잇드냐!!

戊寅(二九六五)一一、七

新羅瑞巖和尚의

三段法語 (一譯)

趙 宗 玄

一

못노니 和尚이여  
어떤것이 禪인게오  
여봐라 이층아  
무덤이 집이드나

二

알고저 하옵나니  
道란것이 무언게오  
말어라 그만두라  
부지런슨 馬夫로다

三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것이 教라시고  
첫보고 잘볼나  
좀먹은 禪冊張을

(戊寅十一月)

(附原文)  
如何是禪

古塚不爲家

如何是道

徒勞車馬迹

如何是教

貝葉收不盡

(右傳燈錄)

떠나는 동무여

尹 二 祚

동무여!

떠나면 가는곳이 어디인가  
燭世가 그다지도 피뚝든가  
사랑도 눈물도 실음도  
그리고 이땅의 실은 佛說도  
열은胸中에 埋葬하야 버리고  
떠날것이 무엇인가  
血汗의 蒸氣는 맑은 靑空에 雲凝하야  
半生의 남은恨을 풀논이  
乾燥한 나의顔面에 悲愁의 물결이  
追憶의 森林을 불드리노라

동무여!

떠나면 가는곳이 어디인가  
純情의 愛戀을 직히는  
百合과 薔薇의 香氣 넘치는

蜂蝶의 주막인 花園인가  
 밤이면 天空에 나타나서  
 微笑에 넘치는 輝光으로  
 塵世를 慰勞하는 別世界인가  
 輝煌燦爛한 蓮花冠을 써고  
 甘露의 淸淨法水를 뿌리주시는  
 觀音聖母의 품안인가

동무여!

떠나면 가는곳이 어대인가  
 不滿도 설움도 苦悶도  
 感覺의 餘裕도 없고  
 한점의 희갈도 없이  
 球玉가리 誇고도 誇는  
 永遠不滅의 安住處가  
 또잇섯는가

昭和十三年(二九六五)一〇、三〇

—(鞠澤一隅에서)—

# 失題

牛步行人

여복소 제발갑소  
 손잡고 그리마오  
 이사람李大師야  
 큰일낼 여보모시  
 어주비 이집만큰집  
 無語兮 無語兮

저때라 마하살이  
 이때라 보살인채  
 해진뒤 새삼스리  
 부흥부흥  
 밤이라 날뛰는구면  
 無乙兮 無乙兮

惡化의 기른술에  
 寄虫群 刺滅코야  
 불질너 버릴내니  
 塔초차 문일가바  
 그대로 두고보자도  
 묵발될가 하노라

(十一月十二日—於東京)

# 卒業하는 諸兄의 面影

郭西淳

留學! 卒業! 錦衣還郷!! 이얼마나 好華로  
 은 形容詞이나 이詞句自體가 好華로운것이랴면  
 그것을 兼히 가질수잇는이와 이를 祝賀하는者  
 間에 또한 明朗한 우습이잇서야만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將次 머지안어 떠나실 先輩들  
 을 對하면 空然히? 짜증만나고 아지못할?  
 疑問符號만이 胸襟을떠나지안는다.

이것이 무엇에起因한 怪事實일까 友情에倦怠  
 이런가? 先後次第의 猜忌心이런가? 차라리前  
 者나 後者에 그原因을 說明할수잇다면 우리情  
 이 疎遠함을 恨할분이잇으나 以上の 兩者共히  
 아님에야엇저라 回憶하면 敎界의危機를報하는赤  
 信號가 亂綱子の 사이엔소리와함께 나타나오니  
 憂愁思慮의 悲喜交雜이 春風秋雨三十餘載! 七

千法徒의아우성은 氣盡絶息에 達하였다. 이危急  
 存亡之秋를 무엇으로써 匡救하랴 敎界의危機이  
 러하매 先輩들의 殉敎思想은 洋의東西를勿論하  
 고 그들이잇는곳에는 머운피가 끌었는것이다.  
 近頃數 十年을通하여 江戸에배운 先輩들의出陣  
 이 또한 만었으니 보내는 後輩들의希望도 켜  
 거니와 出戰하는勇士들의盟誓가 그얼마나 悲壯  
 하였으랴 그들의抱負와 決意는 當時 그들이아  
 니고는 모를것이다. 그러나 敎界의運이 衰頹  
 인지 魔의作戲가 甚하였음인지 그들은 上陸第  
 一步로 武裝의解除를當하고 敗殘兵이된者 或은  
 機를乘하여 走狗의行動을 敢作하는者 吾不關焉  
 의態度로서 生佛이되어버린者 옷지그數들 이로  
 枚擧할수잇으랴 이러한事實을 目視하는 우리로